

# 티베트 불교미술의 극치 한눈에

## 탐구당「西藏曼荼羅集成」펴내

티베트불교(밀교)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西藏曼荼羅集成」이 최근 탐구당(대표 洪錫禹)에서 출간됐다.

원색 만다라 139장과 해설책자(334면) 1권으로 돼 있는 「만다라집성」은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양식의 만다라도 90매 이상이나 포함돼 있는 등, 불교미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다라(Mandala)란 '본질의 구현' '모든 법을 빠짐없이 갖추다'라는 뜻을 지닌 산스크리트語로, 흙으로 쌓아올린 단에 신상을 안치한 것을 일컫다가 점차 그 형상을 그린 그림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했다. 4세기경 「金光明經」이라는 경전에서 만다라 작도법이 처음 나타난 이래 7세기에 들어와서야 짜임새 있는 형상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나무에 그리는 것, 베나 명주와 같은 천에 그리는 것, 오색(백·청·황·적·녹색)의 모래로 그리는 모래 만다라가 있는데, 원을 중심으로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구도에 극히 세밀한 필치로 갖가지 형상과 무늬를 그려 넣고 있다. 대부분의 만다라는 모든 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부처를 가운데에 두고(中尊)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보살과 무수한 권속이 모인 장엄한

道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와 색상은 물론 위치 하나하나까지도 티베트의 불교교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만다라는 부처와 보살·땅·물·바람 등의 元素가 정연하게 자리잡은 '압축된 세계圖'인 동시에, 그림으로 그려진 불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들어 티베트의 名刹인 고루寺의 貫主(주지)이던 쿤가텐빠겔젠에 의해 탄트라(밀교적 규범과 교리) 이론들을 체계화해 이를 바탕으로 만다라를 완벽하게 집대성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1870년부터 1892년까지 東티베트의 존사르타시 쓰에에서 20여년 간에 걸친 작업 끝에 만다라이론의 집대성인 「탄트라部집성」(전30권)과 그를 토대로 그려진 만다라 139매가 완성되게 되었다. 완성된 후 版本은 사카派의 데루게훈토프텐寺에, 인쇄본은 고루寺에 보관돼 있었는데 1958년 쇄남쨌쨌 승려가 만다라 이론의 연구를 위해 국외로 갖고 나왔다가 중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티베트로 돌아가지 못한채 오늘날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을 일본 講談社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인도·미국·영국이 공동출판에 참여함으로써 전



탐구당에서 펴낸 「서장만다라」, 139장의 만다라와 해설책자 1권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에 소개되게 된 것이다.

원본은 가로·세로 각각 38.5cm이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아 볼 수 있도록 25%를 확대해서 가로·세로 51cm의 크기로 인쇄했으며, 섬세한 색감을 살리기 위해 최고수준의 인쇄기술을 동원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탐구당측의 얘기다. 따라서 제작에 쏟은 노력과 정성에 걸맞게 책값도 국내 단행본사상 최고가인 85만원. 워낙 일반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470부 한정판으로 출간됐다. 그러나 각 대학도서관과 불교관련 전공자들은 물론 서양미술 전공자들로부터도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고 洪錫武 장무는 말한다.

이번에 출간된 「만다라집성」은 인도에서 발전한 作·行·요가·無上요가 등 4종의 탄트라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후기 밀교사에서 중시되고 있는 무상요가 탄트라 계열의 만다라 90점 가량을 수록하고 있어 인도 및 티베트 밀교, 나아가서는 불교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밀교를 직접 도입한 티베트만다라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불교의 만다라, 즉 탕화나 변상도 등의 佛畫와의 비교연구에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애리 기자

## 일러스트레이터들의 통합단체 '출판美協' 발족

### 지난 11일 창립총회 가져...회장에 金榮注씨

한국출판미술가협회가 지난 11일 하오 6시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출판미술분야에 종사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상호이해와 제휴를 통해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를 위해 결성된 동 협회의 이날 총회에는 모두 141명의 현역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 회장에 원로화가 金榮注씨, 부회장에 金敎滿교수(서울대)를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총무(강우현, 이성표), 저작권(이원복, 광영권), 신문잡지(이우범, 이영원), 아동도서(최충훈, 이은주), 교과서(안정연, 류재수), 국제교류(김광현, 유애로), 홍보(강인춘, 이대승) 등 7개 분과의 이사 및 간사를 선임하는 한편, 모두 10장 44조의 협회정관을 통과시켜 그동안 學緣과 人脈에 따라 다양하게 결성됐던 소규모 모임들을 하나

의 공식단체로 통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金榮注씨는 인사말을 통해 동 협회의 결성이 "출판미술의 성숙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저작권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비롯해 원고료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일러스트레이터의 복리후생 및 작품활동지원을 위한 공식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회 차원의 출판사업 및 일러스트레이터 소양교육 등도 장차의 사업계획으로 제시됐다.

올 2월 개최된 제1회 국제그림동화문화전 운영과정을 통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의견을 제시할 단일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 협회창립의 계기가 됐다고 밝히는 총무이사 康禹鉉씨에 의하면, 앞으로의 협회운영은 주



지난 11일 개최된 한국출판미술가협회 창립총회 광경.

로 회원들의 회비납부에 의존할 방침. 그림동화문화전 당시의 작품판매 수익금을 협회설립기금으로 확보한 데 이어, 회원들의 출연금으로 협회 살림을 '독자적'으로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전한다. 아울러, 협회의 첫번째 사업으로 일본의 아동도서 전문가 松居直(福音館 회장)씨를 초청, 12월10일 '그림책의 출판

과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회원 가입자격은 정회원의 경우, 최초 인쇄출판된 작품이 1년 이상 경과된 현역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연락처는 전화 549-6440, 6441 (서울 영등우체국 사서함 966호).

— 강철주 기자